

# ‘하세월’ 선거구 획정에 속타는 지역구

### 광주 남구 주민들 국회 방문 “동·남구 합구 반대”

### 전남 장흥·강진·영암 분해 가능성에 “어떻게 되는거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여야 위원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를 등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적인 것에 대해 입장차가 여전히 협상에 진척이 없다”며 “당분간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

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조정 예상 지역에서는 혼란을 넘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광주 동구와 합쳐 두 개의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광주 남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민자치위원장단은 지난 24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실, 이종걸 원내대표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 이학재 의원실을 각각 방문, 남구·동구 선거구 통합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남구보다는 북구와 동구를 묶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호 남구청장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광주 남구의회의도 지난 25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 동·남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 경우 북구 또는 남구와 합치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구와 동구가 합칠 경우 북구갑·북구을인 기존 선거구가 북구갑·북구을·북구병으로 나뉘고 동구는 이 가운데 북구갑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와 합쳐질 경우엔 동남갑, 동남을의 두 개 선거구로 나뉘게 되고, 동구는 동남갑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인 정진욱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결정이 우선시되는 만큼 광주 1석을 살리기 위해 동구를 합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역적 여건과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구 숫자를 봤을 때는 동구가 남구와 합쳐지는 것 보다는 북구와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에서는 장흥·강진·영암 선거구가 분해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근 시군들은 3개 군이 어느 지역으로 통합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흥이 고흥·보성으로, 강진·영암이 무안·신안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해당 지역 출마자들은 유·불리를 따지면서 국회와 선관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자리 모인 새정치 “힘 모음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윤창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29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진전 없는 예산 확보...꽉 막힌 광주·전남 현안사업

### 자동차 100만대 예타 ‘보류’·세계수영대회 전역 삭감

### 처리시한 D-2...호남고속철 2단계 등 장기화 가능성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광주·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이 기로에 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방정처리시한(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신규 편성이나 증액 등이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시가 사업비 353억원 반영을 요청한 상태지만

예비타당성 결과 ‘보류’됐다.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30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수시배정’ 예산은 내년 2월 예비타당성 관문을 통과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사업 첫해 예산으로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빛고를 산단 설계, 장비, R&D 비용 등으로 353억원을 요구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편성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가운데 예산 확보 전망도 불투명하다.

내년 조직위원회 구성에 따른 출연금과 운영비 등 요구한 46억원 중,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대회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시비 17억원을 편성했다.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관련 예산 확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비,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사업비 등의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전남도 역시 요청액 250억원과 100억원 전액이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를 비롯해 남해안철도 목포~보성 건설, 광양항 24일 컨테이너칸 일선지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편

성 및 증액에 나섰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77.6km) 건설사업,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69.55km), 여수세계박람회장 효율적 사후 활용 등의 기반시설사업도 예산 증액 없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달 2일까지 경제부시장과 정부부시사를 국회에 상주시켜 국회 예결위원과 등과 상시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현안이 줄줄이 예산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의 현안 예산을 정부·여당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의지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익기자 cki@/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여야 쟁점 법안 처리 막판 진통

### 8개 법안 이견 커...여, FTA 비준 단독처리 압박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부를 대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지난 26일 심야 회동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국회 밖에서 연일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주요 쟁점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여야에 따르면 한중 FTA와 비준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등 피해보전대책과 관련해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농업 등 분야의 지원을 위해 기업들로부터 10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야의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주요 쟁점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누리고정 예산 정부 지원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4대 쟁점법안을 여당이 수용해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부터 1일과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자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일괄 타결이 안 되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도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면 여야 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 처리는 ‘올스톱’ 될 가능성이 커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

# 野 ‘아들 로스쿨 논란’ 신기남 의원 조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기남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논란과 관련,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과 3개월 전 윤후덕 의원의 ‘말 취급 청탁 논란’에 이어 또다시 소속 의원이 자녀와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에서 “당무감사원은 신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립적 지위가 있는 당무감사원은 신 의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해 바 있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8일에는 개인 성명을 내고 “당무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기후변화 회의차 佛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가 신(新)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모멘텀 확보 차원에서 주최하는 정상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소개한 뒤 개도국 지원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40여개국 정상·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에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우리 대통령이 유네스코에서 특별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및 체코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kpark@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1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5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5. 12. 24(목) ~ 30(수) ·전형일: 2016. 1. 5(화)

**대학원**  
▶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5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5. 11. 23(월) ~ 25(수) ·전형일: 2015. 11. 27(금)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